



버섯요리를 사랑하는 폴란드인

폴란드사무소

버섯채집, 생활의 일부

- 폴란드인들에게 취미생활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'버섯 따기'라는 답변을 종종 들을 수가 있다. 버섯 시즌이 막 끝난 올해 10월, 폴란드의 여론조사 기관 CBO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폴란드인 응답자의 77%가 버섯을 따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, 67%는 어쩌다 한 번의 활동이 아니라 한 달에 2~3번씩 정기적으로 버섯 따기에 나선다고 응답했다.
- 버섯을 따는 취미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, 20세 이하의 학생들 중에서도 45%가 버섯 따기를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폴란드인들에게 버섯 채집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.

- 폴란드의 존경받는 문학가이자 예술가인 아담 미츠키 에비치의 그림 작품에도 버섯 채집 모습이 있을 정도로 폴란드인들에게 있어 버섯채집은 세대를 초월한 생활의 일부이다.

버섯의 종류와 보관법

- 채집한 버섯들은 각 가정에서 바로 신선한 상태로 조리하거나, 저장을 위해서 건조 또는 피클처럼 식초에 절이는 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. 그래서 매해 9월부터 버섯시즌이 시작되면 식용버섯 구분하는 법부터 채집한 버섯을 장기간 보관하는 법 등을 안내하는 버섯 채집 가이드(Mushroom Picking Guide)가 현지 미디어에 소개되기도 한다.



1. 그물버섯
2. 피꼬리버섯
3. 비단그물버섯

• 폴란드인들이 야생에서 채집할 때 선호하는 버섯은 그물버섯(Forest Boletus), 피꼬리버섯(Chanterelles), 비단그물버섯(Suillus) 등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모양의 버섯이지만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양송이버섯, 느타리버섯 등이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조리가 간편하도록 슬라이스하거나 2~3가지 종류의 버섯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다.

들이나 새로운 종류의 버섯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폴란드인들에게 한국의 새송이버섯, 팽이버섯도 진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

•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폴란드의 채식인구들에게 육류 대용으로 버섯의 소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. 다만 아직까지는 한번도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맛과 식감, 그리고 현지식에 어울리는 레시피의 소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새송이버섯, 팽이버섯 진출의 가능성

- 버섯의 채집이 활발한 만큼 버섯의 수출도 활발하다. 네덜란드 통계청 CBS에 따르면 폴란드는 EU 내에서는 네덜란드 다음으로 버섯의 주요 수출국으로 2017년 30만 톤 이상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 독일, 벨기에, 영국 등이 폴란드산 버섯의 주요 수입국이다.
- 폴란드 식단에서 버섯은 빼놓을 수 없는 식품으로 주로 스프를 끓여 먹거나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한 피에로기의 속재료로 넣거나 오이나 양배추 피클처럼 버섯 피클로 만들어 먹는다. 그렇기 때문에 미식 레스토랑의 셰프

